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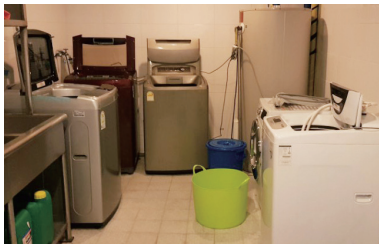
화요일 아침 예술학교 후원 후기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바보의나눔'이 함께하는 국내외 원조사업으로, 매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

2017년 12월 24일 서울주보에 소개되었던 '화(花)요일 아침 예술학교' 소식을 전합니다.

매일 꽃처럼 아름답게 희망을 열며 살자는 뜻을 지닌 '화요일 아침 예술학교'는 미술에 소질이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꿈을 키워주는 학력 인정 대안학교입니다.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소속으로 학생들의 식비와 주거비, 교재 구입비, 건물 유지보수비, 교직원 월급 등 학교 운영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후원금으로 충당합니다. 지금까지 후원금은 학교 운영만으로도 빠듯해 추가적인 설비 지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설비지원과 학생들의 장학금 지원을 위해 사랑의 손길을 통해 후원금을 모금했는데 총 269명의 후원자께서 39,664,465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학생 수에 비해 세탁기가 턱없이 부족해 학생들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후원금으로 세탁기를 추가로



구입한 덕분에 학생들이 빨랫감을 바로바로 세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빨래건조장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 빨래 건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 건조기를 마련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 방에 설치된 벽걸이 에어컨은 방 평수에 맞지 않아 여름철이면 학생들이 무더위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후원금으로 스탠드형 에어컨을 설치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예술학교 졸업생 대부분이 미술대학에 진학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등록금, 주거비, 생활비, 미술용품 구입비 등을 스스로 해결해야 해서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후원금으로 졸업생 5명에게 대학등록금을 지원해 졸업생 전원이 올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또한 재학생 20명에게도 장학금 통장을 만들어 차후 대학진학 및 진로와 관련한 제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존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학교운영은 가능했지만, 학생들의 기숙사 생활에 대한 환경개선을 하기에는 지원금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랑의 손길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학교와 기숙사의 환경개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졸업 후 진학과 자립을 위한 지원금을 마련하게 되어,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기회와 방법을 얻을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도움을 받은 졸업생들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기 위해 다양한 진로를 선택하여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있으며, 학교 후배들을 위한 재능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예술학교 일동)”